



리 경제에서 벤처기업은 생산에서 GDP(국내총생산)의 3%, 수출의 4%, 고용의 3% 정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뜻 보기에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듯하나,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3년 기준 전년대비 25.3%로, 중소기업의 5.4%, 대기업의 6.6%에 비해서 무려 4배 내지 5배 정도 높고, 수출증가율은 대기업 39.2%와 비슷한 38.6%이다.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곧 국가 경제의 성장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경제

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요즘, 벤처기업도 예외는 아니

다. 특히, 많은 벤처기업들이 개발자금 조달, 원자재 가

격 급등, 기술인력 확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즘 벤

처기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확대

등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확대에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실패한 벤처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는 패자

부활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하여 극히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정부는 알짜 중소기업을

키워 성장엔진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의 80%를 벤

처기업이나 이노비즈(Inno-biz)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

OVER THE VENTURE

## 벤처 R&D 투자 확대해야

글 \_ 윤교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원장)

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기술을 평가하여 대출을 지원하는 기술평가대출 전용자금을 신설하는 등 벤처기업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패자부활제도 도입 등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우리 평가원은 국가 R&D 예산의 약 20% 정도를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현장의 기술개발 기관에 집행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연구개발 부문에서만 약 1조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정도를 벤처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할 전망이다. 차후에도 기술중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이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R&D 투자 확대는 우리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볼 때,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